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및 직업관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f occupation for EMT students

김미숙* · 박소미* · Wang Chengying* · 서하얀* · 주영주* · 이경열** · 최은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이제 학문을 위한 학문이념 추구 장소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봉사기능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있다¹⁾.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소질 또는 흥미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합격 위주로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전공학과의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전공학과의 불만을 갖고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게 된다²⁾. 특히 중요한 것은 해당 전공이 자신의 적성 및 소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입학한 학생과 자신의 적성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한 학생과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또는 시발점이 다르다고 했다³⁾. 대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공 선택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되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대학은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양과목을 듣고, 여러 학문 분야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한 후에 2학년이나 3학년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입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할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입학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맞추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지원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고, 점수에 맞추어 가능한 학교를 살펴본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전공분야의 장래성, 취업 가능성 및 사회적 인지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전공학과를 지원하는 과정은 소수의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⁴⁾. 인간이 결정하는 대부분의 선택과정은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지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출발된다.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올바른 전공 선택의 과정은 신입생이 지원 가능한 학과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필요로 한다⁵⁾.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응급구조학과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투고일(2010. 11. 1), 심사완료일(2010. 11. 30), 게재확정일(2010. 12. 7)

교신저자: 박소미(somcandys@nate.com)

박과 김⁶⁾의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 상황은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지도를 받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고 했다. 비록 진로 발달 단계 중에서 대학생은 진로 준비 단계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진로 미결정상황에 해당되는 대학생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진로 미결정 상황을 벗어나, 하늘이 부여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하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을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 지도 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로 지도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이 어느 정도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특수한 계열과 학과를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가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2000년 이전의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1995년 전국의 11개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지 15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중 현장출동요원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바로 1급 응급구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법률상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자격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전공 선택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며, 전공 선택 후 대학의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지, 학과에 적응하는 수준은 어떠한지, 아울러 어떠한 직업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이전 선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학과개설 이후 전공선택 동기와 만족도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직업관을 파악하여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고등학생의 진학 상담 시 전공 선택 과정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직업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대상과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직업관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4년제 대학 6곳의 665명과 3년제 대학 7곳의 921명으로 총 13개 대학의 1,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구성은 선행연구들^{4,7-9)} 중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진로의식 관련문항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전공선택 동기 2문항, 전공만족도 2문항, 학과적응도 2문항, 직업관에 대한 2

문항으로 총 15문항이며, 전공만족도에서 2문항과 학과적응도 2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연구도구는 33명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전공선택 동기

전공 선택은 진로목표,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¹⁰⁾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와 영향을 준 사람을 조사하였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¹¹⁾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만족하는 정도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3) 학과적응도

학과적응도란 개인이 선택한 학과에 적응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학과의 교육내용과 개인의 적성과 소질의 부합 정도, 학과 수업 참여의 적극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4) 직업관

직업관은 직업에 대한 견해나 사고방식이며, 직업가치관은 하나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를 보는 관점, 한 개인 또는 사회가 일 또는 지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가치관¹²⁾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선택과 실제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의 배부와 수집은 2010년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학의 관계자 또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전체 13개 대학에 1,769부를 배부하였으며 1,63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확실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보인 4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8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직업관의 파악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로 사후검정 하였다.

3)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직업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이 50.2%(796명), 여학생이 49.8%(79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학년은 34.6%(548명), 2학년은 27.4%(434명), 3학년은 28.2%(448명), 4학년 9.8%(156명)으로 나타났다. 수업연한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3년제 학생이 58.1%(921명), 4년제 학생이 41.9%(665명)를 차지했다. 누적평점은 'B⁺-B⁰'라고 응답한 학생이 53.0%(840명)를 차지해 가장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86)

요 인	구 분	수업연한(n(%))		n(%)
		3년제	4년제	
성별	남자	582(36.7)	214(21.4)	796(50.2)
	여자	339(21.4)	451(28.4)	790(49.8)
학년	1학년	361(22.8)	187(11.8)	548(34.6)
	2학년	270(17.0)	164(10.3)	434(27.4)
	3학년	290(18.3)	158(10.0)	448(28.2)
	4학년		156(9.8)	156(9.8)
누적평점	A ⁺ -A ⁰	365(23.0)	186(11.7)	551(34.7)
	B ⁺ -B ⁰	432(27.2)	408(25.7)	840(53.0)
	C ⁺ -C ⁰	88(5.5)	51(3.2)	139(8.8)
	D ⁺ -이하	20(1.3)	10(0.6)	30(1.9)
	미응답	16(1.0)	10(0.6)	26(1.6)
병원실습	예	521(32.8)	334(21.1)	855(53.9)
	아니오	400(25.2)	331(20.9)	731(46.1)
소방실습	예	429(27.0)	281(17.7)	710(44.8)
	아니오	492(31.0)	384(24.2)	876(55.2)

높았고, 'A⁺-A⁰'라고 응답한 학생은 34.7%(551명)였다. 전체 응답자를 수업연한에 따른 성별 분포로 다시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3년제의 경우 남학생이 582명으로, 여학생 339명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4년제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214명, 여학생이 451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병원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53.9%(855명),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46.1%(731명)로 병원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소방실습에서는 소방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44.8%(710명),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55.2%(876명)로 소방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 동기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35.8%(5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7.3%(4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문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는 15.8%(250명)로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9.3%(148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 성적에 맞춰서'도 9.2%(146명)로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본인의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응답자는 62.7%(99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선택에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13.1%(207명), 친인척 7.6%(120명)와 친구 7.6%(120명)로 동일한 수치였으며 선생님의 영향은 5.7%(90명)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3〉과 같다.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69.1%(1,096명)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20.6%(327명), '그렇지 않다'가 9.4%(194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0.9%(14명) 순으로 나타나 89.7%(1,423명)가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다. 응급구조학을 배우면서 학문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지를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64.8%(1,028명)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28.4%(451명), '그렇지 않다'가 6.2%(98명), '전혀

〈표 2〉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와 영향을 준 사람

(N=1586)

변 수	구 분	n(%)
전공선택 동기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568(35.8)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433(27.3)
	학문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250(15.8)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148(9.3)
	수능성적에 맞춰서	146(9.2)
	기타	41(2.6)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본인의 의사	995(62.7)
	부모	207(13.1)
	친인척	120(7.6)
	친구	120(7.6)
	선생님	90(5.7)
	기타	54(3.4)

〈표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의 빈도분석 및 평균

내 용	빈도(n(%))				평균(M±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14(0.9)	149(9.4)	1,096(69.1)	327(20.6)	3.09±.57
응급구조학을 배우면서 학문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9(0.6)	98(6.2)	1,028(64.8)	451(28.4)	3.17±.56

그렇지 않다'가 0.6%(9명) 순으로 나타나 93.2%(1,479명)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전공만족도의 빈도를 4점 척도로 계산한 결과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 4〉와 같다. 전공 만족 이유는 '취업 전망이 좋아서'가 34.9%(496명)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아서'가 31.9%(454명), '발전가능성이 높아서' 28.5%(405명), '학교 교육여건이 좋아서' 2.5%(36명), 기타 2.2%(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불만족 이유는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가 39.9%(65명)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8.8%(47명), '취업전망이 좋지 않아서'가 18.4%

(30명), '전공과목 내용이 어려워서'가 8.6%(14명), 기타 4.3%(7명)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학과적응도

학과적응도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5〉와 같다. 학과가 적성이나 소질에 잘 맞는다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70.1%(1,111명)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18.9%(300명), '그렇지 않다'가 9.3%(148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27명) 순으로 나타나, 88.9%(1,411명)의 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67.3%(1,067명)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25.0%(397명), '그렇지 않다'가

〈표 4〉 대상자의 전공에 대한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

(N=1586)

구 분	내 용	n(%)
전공 만족 이유 (n=1,423)	취업전망이 좋아서	496(34.9)
	적성에 맞아서	454(31.9)
	발전가능성이 높아서	405(28.5)
	학과 교육여건이 좋아서	36(2.5)
	기타	32(2.2)
전공 불만족 이유 (n=163)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65(39.9)
	적성에 맞지 않아서	47(28.8)
	취업전망이 좋지 않아서	30(18.4)
	전공과목 내용이 어려워서	14(8.6)
	기타	7(4.3)

〈표 5〉 대상자의 학과적응도의 빈도분석 및 평균

내 용	빈도(n(%))				평균(M±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과가 적성이나 소질에 잘 맞는다.	27(1.7)	148(9.3)	1,111(70.1)	300(18.9)	3.06±.58
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2(0.8)	110(6.9)	1,067(67.3)	397(25.0)	3.17±.56
					3.11±.47

6.9%(110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0.8%(12명) 순으로 나타났다. 92.3%(1,464명)의 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과적응도에 대한 빈도를 4점 척도로 계산한 결과 평균 3.11점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직업관

이상적인 직업의 선택요소와 현실적인 직업의 선택 요소는 2개까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상적인 직업선택의 요소에서는 ‘적성과 소질’이 34.8%(992명), ‘적정 수준의 연봉’이 17.6%(502명), ‘전공을 살리는 것’이 15.2%(434명)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위와 존경’이 3.7%(107명), ‘국가와 사회에 봉사’가 3.5%(100명), 기타 0.5%(14명)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선택의 실제적인 요소에서는 ‘적성과 소질’이 30.2%(845명), ‘적정 수준의 연봉’이 25.9%(726명)

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위와 존경’이 3.0%(84명), ‘국가와 사회에 봉사’가 1.9%(52명), 기타 0.5%(14명)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t = 4.548, p = .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 높았다. 학년별 차이는 3년제 대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4년제 대학에서는 유의한 차이($F = 3.605, p = .013$)가 있었으며 1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다. 또한 누적평점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F = 3.276, p = .011$)가

〈표 6〉 대상자의 직업 선택의 이상적인 요소 및 실제적인 요소

(N=1586)

구분	내용	n(%)
이상적인 직업의 요소	적성과 소질	992(34.8)
	적정 수준의 연봉	502(17.6)
	전공을 살리는 것	434(15.2)
	안정성	289(10.1)
	발전가능성(미래유망)	219(7.7)
	근무조건(환경)	197(6.9)
	사회적 지위와 존경	107(3.7)
	국가와 사회에 봉사	100(3.5)
	기타	14(0.5)
직업 선택의 실제적인 요소	적성과 소질	845(30.2)
	적정 수준의 연봉	726(25.9)
	안정성	395(14.1)
	전공을 살리는 것	286(10.2)
	근무조건(환경)	217(7.8)
	발전가능성(미래유망)	181(6.5)
	사회적 지위와 존경	84(3.0)
	국가와 사회에 봉사	52(1.9)
	기타	14(0.5)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의 차이

특성	구분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3.20±.48	4.548	.000***		3.14±.48	2.279	.023*	
	여자	3.09±.47				3.08±.46			
3년제	1학년	3.17±.47	0.257	.774		3.07±.49	1.928	.146	
	2학년	3.16±.47				3.11±.46			
	3학년	3.14±.47				3.14±.44			
4년제	1학년 ^A	3.20±.51	3.605	.013*	A>B	3.14±.46	0.206	.893	
	2학년	3.17±.47				3.10±.44			
	3학년	3.12±.49				3.11±.49			
	4학년 ^B	3.04±.50				3.11±.49			
수업 연한	3년제	3.16±.47	0.698	.485		3.10±.46	-0.411	.681	
	4년제	3.14±.49				3.11±.47			
누적 평점	A ⁺ -A ⁰	3.18±.50	3.276	.011*		3.22±.45	18.128	.000***	A>B>C
	B ⁺ -B ⁰	3.14±.48				3.08±.46			
	C ⁺ -C ⁰	3.13±.44				2.92±.44			
	D ⁺ 이하	2.98±.40				2.83±.59			
	미응답	2.92±.33				2.96±.44			
병원 실습	예	3.12±.49	-2.878	.004**		3.12±.46	0.66	.509	
	아니오	3.19±.47				3.10±.47			
소방 실습	예	3.14±.49	-0.836	.403		3.14±.46	2.322	.020*	
	아니오	3.16±.48				3.08±.47			

p < .05*, p < .01**, p < .001***

〈표 8〉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와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	학과적응도
전공만족도	1.00	
학과적응도	0.618(.000 ^{***})	1.00

p < .001^{***}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만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실습 유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이 다녀온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t = -2.878, p = .004$). 소방실습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적응도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t = 2.279, p = .023$)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적응도를 보였고, 수업연한이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누적평점에서도 유의한 차이($F = 18.128, p = .000$)가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높았다. 'A⁺-A⁰' 그룹의 대상자들이 'B⁺-B⁰' 그룹의 대상자보다는 높고, 'C⁺-C⁰' 보다는 'B⁺-B⁰' 그룹의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다(A>B>C). 병원실습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방실습의 경험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t = 2.322, p = .020$)가 나타났으며 소방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있어서 높았다.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r = .618, p = .000$)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평생의 직업

을 선택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전공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적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없다면 이 선택은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 전 현장과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학과로서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14곳이고, 3년제 대학은 20곳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이전 연구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로 1997년도에 두 개의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2학년생 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와 이¹³⁾의 일부 응급구조 전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현장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응급구조과 입학동기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전문직업을 갖기 위하여'가 23명(34.8%),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가족 및 친지 주위의 권유로'가 16명(24.2%), '자신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가 12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1997년 3개의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 등¹⁴⁾의 일부 전문대 응급구조학생의 응급구조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응급구조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43.5%가 '전문직업을 갖기 위하여'라고 응답했으며, '가족, 친지 및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입학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7.1%로 나타났다. 기타도 14.8%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의료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격에 맞아서', '국립

이고 신설과라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등이었다. 또한 94.4%의 학생이 응급구조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로 1999년도에 한 개의 전문대학 2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 등¹⁵⁾의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가 있다. 응급구조과 선택 동기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나의 적성과 취미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1명(52.5%),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5명(8.5%), '졸업 후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는 3명(5.1%), 기타의견이 20명(33.9%)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6명(27.1%), '그저 그렇다'가 38명(64.4%), '불만족한다'가 5명(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35.8%(5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7.3%(433명), '학문이 흥미로운 것 같아서' 15.8%(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설 초기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전공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이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로 단순히 전문직업이나 주위의 권유가 아닌 취업전망과 본인의 적성까지 고려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과 조사 대상 자수가 70명 이내로 적었던 점, 그리고 연구 시점이 응급구조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의 열악한 취업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사회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평생 직업을 선택하려는 대학생들의 기본 의식이 밑바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과개설 15년이 넘는 현재는 응급구조사의 채용현황과 긍정적인 사회 시선, 사회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증가되어 재학생들의 전체

적인 학과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전공 대학생 스스로의 자부심이나 긍지도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와 이¹³⁾의 연구에서 입학 후 과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7명(25.8%), '그저 그렇다'가 38명(57.6%), '불만족스럽다'가 11명(16.7%)이었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것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0.6%(327명)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9.1%(1,096명)로 전체 89.7%(1,423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 등¹⁶⁾의 일부 대학의 응급구조과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고찰을 보면 '전공 공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비중이 높게(평균 60.9%) 나타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의 불만족 사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가 39.9%(65명),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28.8%(47명), '취업전망이 좋지 않아서'가 18.3%(30명), '전공과목 내용이 어려워서'가 8.6%(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전공 공부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응급구조(학)과의 졸업 후 취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학과 선호도가 높아져 전체적인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큰 불만족 사유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점을 볼 때 응급구조학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직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과 김¹⁷⁾의 연구에서 병원 임상실습의 전체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20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실습 전체 만족도는 3.11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응급실 임상실습은 유의한 차이($F = 1.21, p = 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와 소방실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

른 병원실습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녀온 학생들보다 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방실습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과적응도와 병원실습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방실습의 경험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소방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 4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들 보다 낮았고, 병원실습 경험 후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학과적응도에서는 소방실습 경험 후에 오히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 넓은 대학에서의 응급구조(학)과 교육 내용에 비해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를 체감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효율적인 병원실습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공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대다수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응급구조사의 필요성과 관계기관의 인력부족상태가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취업전망이 학과 개설초기보다 좋아진 결과로 본다. 또한, 각 개인마다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망이 있고, 각종 대중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학과 홍보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일선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학생들이 취업전망과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면서 취업전망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소방직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병원 등의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유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과개설 초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본다.

하지만,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항목 중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걸맞은 요소는 직업 선택시 가장 고려하지 않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의 직업관이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아야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점과 봉사 역시 적성과 소질에 맞고 적정수준의 연봉이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개인의 적성과 경제적인 안정성도 도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병원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낮게($t = -2.878, p = .004$) 나타났고, 학과적응도는 소방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t = 2.322, p = 0.20$)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현 교육과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병원실습과 소방실습의 운용 형태를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시기나, 방법, 기간 면에서 개선한다면 전공만족도와 학과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처와 취업 준비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가장 적합한 성격유형이 별도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성격 유형 분석 연구를 통해 원활한 학과 선택과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학과 적응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이미경.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하선아.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연구: 인지 양식, 성정, 성별, 계열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양정호.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 김수영.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 이경희, 권준모. 대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996;12(1):95-112.
6. 박동열, 김대영.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2006;25(2):1-32.
7. 임이은. 경호안전학 전공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조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 송민.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조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 한양금, 유지수.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10; 10(1):31-38.
10. 이건남, 정철영.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 농업교육학회 2009; 41(1):87-110.
11.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2. 병정진. 어머니의 취업이 여중생의 직업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최은숙, 이인수. 일부 응급구조 전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현장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7;1(1):87-99.
14. 김학수, 최은숙, 김진희, 신동민, 이인수. 일부 전문대 응급구조학생의 응급구조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7;1(1):147-164.
15. 전화연, 김걸, 안흥기.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9;3(3):43-54.
16. 조진만, 김학수, 김진희. 일부 대학의 응급구조과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고찰.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0;14(4):73-81.
17. 박정미, 김순심. 응급구조학생들의 실습대상지별 현장실습만족도 비교.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8;2(1):7-25.

=Abstract =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f occupation for EMT students

Mi-Sook Kim* · So-Mi Park* · Wang Chengying* · Ha-Yan Seo*
· Young-Ju Joo* · Kyoung-Youl Lee** · Eun-Sook Choi**

Purpose: We investigated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the view on occup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EMT) students. The results of study will be us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Also, it can be used to support decision of major for high school students.

Method: We conducted 1,586 surveys from 665 students at six four-year colleges and 921 students at seven three-year colleges. Our research period was from Aug. 27th to Oct. 31st in 2010. The surveys were analyzed by SPSS 18.0 using description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In our study,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is 35.8% of students selected 'good employment prospects', satisfaction of major's $M \pm SD$ is $3.15 \pm .486$, adaptation of major's $M \pm SD$ is $3.11 \pm .472$. The satisfaction of major show difference ($t = 4.548$, $p = .000$) by sex, also the adaptation of major show difference ($t = 2.279$, $p = .023$) by sex. The satisfaction of major show first grade students higher ($F = 3.605$, $p = .013$) than fourth grade students at four-year colleges. If satisfaction of major is high, accumulation evaluation score is high ($F = 3.276$, $p = .011$), to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students was higher ($t = -2.878$, $p = .004$) than non experienced it satisfaction. In view of occupation, ideal job's factors and actual job's factors a lot of students selected 'aptitude'. Also,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 = .618$, $p = .000$) between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the adaptation of major. High satisfaction indicates high adaptation of major.

Conclusion: In our study satisfaction of major and adaptation of major was very high score. EMT students concern about employment prospects at most. It is inferred that they select job which match with one's aptitude. We can suppose that students select major as a tool for employment by seeing result that a lot of students consider employment prospects at most when they select major. A metho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of major should be developed by realizing problems which occur the dissatisfaction of major. Also, there as on why students conflict between ideal and actual job should be revealed. There as on seems students want stable occupation in unstable job market situation. Therefore, the expansion of job matching aptitude and being stable should be processed. Finally, university should actively support the method that help to finding jobs for student by identifying job preparation of students.

Key Words : EMT students, motivation, satisfaction, adaptation, view of occupation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